

# 中央藥大 同門會報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2020  
vol. 45

Winter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http://www.caupharm.or.kr>



# Contents

중앙약대 동문회보 2020년 겨울호

## 시론

- 3 **다름을 인정하며.....**  
김형수(29회) 부회장

## 인사말

- 5 **이제 한 번 더 도약해야 될 때입니다**  
이재휘(33회) 약학대학장

## 동문회소식

- 6 **화보**
- 8 **'동문 만남의 날', 젊은 피가 더 뜨겁더라**  
개교 101주년 기념 중앙약대 동문회 및 제49회 모교의날 체육대회
- 12 **'우리가 하나 되는 한걸음! 멘토링 2019'**  
다양한 인재육성 인간관계 활동

## 동기회소식

- 15 **새로운 순례길에서**  
13회 동기회 졸업 50주년 기념식  
이종각(13회) 동기회 총무
- 19 **친구야 놀자**  
23회 졸업 40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홍순욱(23회) 동기회장
- 23 **85학번, 그 자리에 마주 서다**  
33회 졸업 30주년의 상념  
조호원(33회)

## 동문 이야기

- 26 **약대 통합 6년제를 향한 선배들의 뜨거운 후원 릴레이**  
  
한창희(11회) 동문, 20년 된 자가용 교체 대신 발전기금 3천만원 쾌척  
  
이은주(16회) 동문, 학창시절 장학금 혜택  
진정주(38회) 동문, 장학금/발전기금 1억4천만원 기부

## 약국도움 이야기

- 29 **진균(Fungi)**  
편집위원회

## 32 회비내역

## 34 만평

## 35 장학기금

## 36 편집후기



## 다름을 인정하며……

庚子年



안녕하십니까?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단계인 12월입니다.

새로이 29회 동기회 회장을 맡게 된 김형수입니다. 우리는 같은 대학교 같은 대학을 졸업한 한 동문이라는 한 우산아래 모인 단체입니다. 이곳에 모인 분들은 1950~60년대 아주 오래 전 대학 캠퍼스를 밟고 나오신 대선배로부터 최근 2010년도 대학을 졸업하여 각 사회에 발을 담고 열정적 사회에 한 일원으로 삶을 영위하는 후배 약사까지 다양성이 있는 사람이 모이는 단체입니다.



김형수(29회)  
부회장

저는 제약회사에서 약 30여년을 근무하고 있으며, 약국도 조금은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직장이라는 곳에서 청춘부터 현재의 나이까지 현업에 남아 생산본부장이라는 직무를 감당하면서 요사이 막 학부를 졸업한 젊은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한 방법을 터득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현 시류에 따라 현재의 Z세대와 소통에 관한 책과 실제로 젊은 직원을 접하면서 느낀 점을 글로 쓰고자 합니다.

1950년대 대학을 다니신 대선배님은 45년 해방 전 일제강점기 시대에 태어난 세대로서 어렵고 힘들며 한국전쟁을 청춘에서 겪은 세대로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져 주셨으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첫 졸업자로부터 10회 이전의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대선배이심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은 1960~70년대 대학생이신 선배님은 한국전쟁으로 피폐화된 대한민국에 태어나 어린 시절 보릿고개라는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시급한 하루하루를 견디어 내면서 그래도 자랑스러운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시고 약국가에서나 제약사 등 다양한 곳에서 동문의 선배로서 성공을 이루신 분이라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후 1980~90년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다닌 우리의 86세대(또는 X세대)는 민주화 등 정부의 혼란기에 사회적 갈등과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고민을 슬과 시로 달래며 나름대로 사회를 바꾸어 보겠다고 앞장선 친구나 용기가 부족하거나 허락되지 못하는 삶을 눈물로 삼키며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약국가나 제약사의 약사로서 자리매김을 하였기에 칭찬을 아끼지 않고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제 2000년도 이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한 N세대(1980년대 후반~1990년대 중반 출생), M세대(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초반, Z세대)는 풍요로운 삶과 인터넷의 빠른 정보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으며, 공정함을 모티브로 삶에 방향을 가지고 자신의 행복함을 위한 투자나 시간을 아끼지 않는 '소확행'을 우선시 하는 젊음이 있어 행복하지만 또한 사회의 변혁이 너무나 빠르고 경제적 편차로 갈등을 겪는 세대의 후배님께서는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다면 어깨라도 내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또한 이제는 10년의 단위가 아닌 단 5년의 차이도 서로 다르므로 세대차를 느낀다고 하는 핫한 후배님들과의 한 자리로 동문이라는 우산에 묶여 두기에 너무도 현실감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는 이제 대선배님들의 추억을 초석으로 사회에 중심에 선 선배님들과 더 나은 삶을 위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4, 50대의 동기들, 그리고 새로이 사회에 나왔지만 정말 치열한 경제 구조와 공정하지 못하여 갈등요소가 있는 후배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씁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어깨를 내어 주는 선후배님 모두에게 힘찬 2020년 새해엔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제 한 번 더 도약해야 될 때입니다



**이 재 휘(33회)**  
약학대학장

존경하는 약학대학 동문 선배  
후배님들께 인사드립니다.

그간의 불확실성을 뒤로하고 마침내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은 2022년부터 통합 6년제로 학제를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광훈 동문회장님과 최두주 사무총장님을 비롯해 우리 약학대학 동문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최광훈 회장님과 약학대학 동문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글로 간단히 약대의 통합 6년제 전환을 보고 드리고 있으나 그 과정은 실로 험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현 2+4년제 하에서 약대의 총 정원은 480명이지만 통합 6년제가 시행되면 총 정원이 720명으로 현재의 정원보다 240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240명을 중앙대의 다른 단과대학의 정원 조정을 거쳐 약대의 정원으로 가져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위 인 서울의 명문대인 중앙대를 구성하는 어느 단과대학도 그 대학의 정원을 한 명도 내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김창수 총장님을 비롯한 대학본부의 각고의 노력 덕분에 적십자간호대학으로부터 240명의 정원을 가져올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약대가 통합 6년제로 전환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통합 6년제라고 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동문 선배, 후배님들께 약대 발전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중앙대 약대의 버팀목이었던 명문 약대라는 자부심과 70년 가까운 역사는 37개 약대들 사이의 심화된 경쟁으로 점점 그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

교내에서의 위상도 예전 같지 않은 게 현재 약대의 위상입니다. 실제로 6년제 전환 과정을 통해 중앙대 구성원들은 약대가 중앙대의 발전을 이끌어오고 중앙대를 대표하는 단과대학임을 인정하면서도 과거의 명성과 비교해 약대 발전에 대해 큰 아쉬움을 표하는 시각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잘 가르치는 대학은 이제 기본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지식 창출에 대학이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내는 연구력이 대학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위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못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적은 못 바꾸어도 학교는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연구 잘하는 학교, 그로 인해 세계적 관심을 받는 학교, 더 좋은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어 과거보다 더 좋은 학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의 주체가 되는 약대의 교수님들은 배전의 노력으로 약대의 연구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작년 학장으로 일하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임종홍 동문님, 한창희 동문님, 이은주 동문님, 진정주 동문님의 기부 사연을 들으면서 큰 감명을 받았고 그 감동의 여운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동문들의 애교심과 모교발전의 열망이 이어지는 한 약대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통합 6년제 약대라는 큰 변화의 시점에서 약학대학 구성원과 약학대학 동문회의 합심하여 중앙 약대의 위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큰 도약의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동문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도 댁내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01
- 02
- 03
- 04
- 05

- 01 **8월 12일**\_ 상임위원단 회의
- 02 **8월 21일**\_ 동기회장단 모임
- 03 **9월 4일**\_ 약학대학 실험반 반장모임
- 04 **9월 9일**\_ 중앙대학교 김창수 총장 면담
- 05 **9월 27일**\_ 멘토링 발대식







- 01 10월 28일\_ 중앙대학교 자랑스런 중앙인 상(강승조 3회 동문)
- 02 11월 23일\_ 여동문회 송년회
- 03 11월 29일\_ 멘토링데이 성과보고회
- 04 12월 19일\_ 감사 및 상임위원단 회의
- 05 1월 11일\_ 신년교례회

01	02
03	04
05	





# 동문 만남의 날

## 젊은 피가 더 뜨겁더라

개교 101주년 기념  
중앙약대 동문회 및  
제49회 모교의날 체육대회



언제 태풍이 불었냐는듯 모처럼 쾌청한 날씨 속에 2019년 10월 13일 중대부속중학교 대운동장에서 우리 동문 400여명이 '제49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에 참여해 즐거운 맘을 흘렸다. 해마다 이루어지는 연례행사임에 더해 올해는 모교인 중앙대학교가 개교 101주년을 맞는 의미가 추가되어 보다 풍성한 잔치가 벌어진 것이다.







**최광훈(22회) 동문회장은** 개회식에서 “이번 제49회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금년들어 연속 되는 태풍 때문에 준비하며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 정말 좋은 날씨에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다 많은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지부별 동문회는 물론 각 기수 동기회며, 실험반 및 직능별 동문회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홍보를 했고, 그런 노력으로 특별히 제주, 부산, 강원, 충청도에 있는 지방동문들은 물론 멀리 LA에서도 우정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셔서 동문회가 다시 한 번 화합과 단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더 뜻깊은 ‘동문 만남의 날’ 체육대회가 되었다”고 치하했다.



**이재휘(33회) 모교 학장은** 축사를 통해 “동문 만남의 날 행사의 의미가 좋다고 생각한다. 많은 선후배 동문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많은 선후배들을 만날 수 있어 무엇보다 기쁘고 반갑다. 최근 우리 약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2022년 약대 통 6년제 전환을 앞두고 최광훈 동문회장님께서 모교 김창수 총장님을 면담하고 강력한 동문들의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6년제 전환기획서를 성공적으로 제출할 수 있었다. 이제 시작이지만 첫 단추를 잘 꿰었으므로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즐겁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어 “2022년 약대가 통 6년제로 바뀌게 되는데 인원조정 문제가 쉽지 않은 만큼 동문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 오늘 체육대회가 바쁜 일상 속에서 모처럼 동문, 학생, 가족이 모두 하나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를 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약학대학 발전기금으로 한창희(11회) 동문께서 발전기금 3천만원 기부식을 진행하여 모교의날 체육대회 '동문 만남의 날'이 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약대 졸업 후 약국을 성실하게 운영해 왔으나 지금도 여유가 있는 정도는 아니고, 오래 전부터 20년 된 고물 자가용을 교체하겠다고 적금을 적립했는데, 만기가 도래하자 차를 바꾸는 개인적인 일보다 후배들을 먼저 돕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이라는 자각에 이르셨다는 말씀에 누구랄 것 없이 잔잔한 감동과 함께 진심 어린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이날 내빈으로는 임완호, 권혁구, 서국진, 장재인, 김현태 고문, 김창중, 조찬휘, 손의동 자문위원, 양덕숙 여동문회장,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을 비롯하여 이재휘 학장 및 다수

의 현직교수와 손동헌, 허인회, 염정록 명예교수 등이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 주셨다.

참석자 전원의 간단한 몸 풀기와 대표선수로 시작된 체육대회는 족구, 테니스, 바둑, 제기차기, 발씨름, 팔씨름, 생맥주 빨리먹기 등 다양한 종목을 통해 가급적이면 한 사람의 동문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대항전과 청백전게임을 진행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체육대회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청백전으로 개최된 단체 줄다리기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최고의 관심과 참여로 운동장의 열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했으며,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추억의 박 터트리기 게임을 통해 잠시나마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마음껏 소리 지르고 웃고 구르고 하는 등



1. 발씨름 2. 제기차기 3. 팔씨름 4. 생맥주 빨리 마시기







## 종목별 수상내역

- 종합우승 34회 동기회
- 준우승 39회 동기회
- 3등 38회 동기회
- 최다참가상 34회 동기회
- 최다참가 분회 안산분회
- 족구 1등 : 34회, 2등 : 39회, 3등 : 푸른구름회
- 테니스 1등 : 김보원/정성훈, 2등 : 김용수/최민규, 3등 : 정의차/장원규
- 발씨름(남) 1등 : 34회, 2등 : 38회
- 팔씨름(여) 1등 : 34회, 2등 : 36회
- 제기차기 1등 : 51회, 2등 : 39회, 3등 : 34회
- 생맥주 빨리마시기 1등 : 38회, 2등 : 39회, 3등 : 약수회
- 바둑 1등 : 김경완(28회), 2등 : 이현희(22회), 3등 : 김태일(22회)



그야말로 야단법석의 대소동을 통해 화합과 축제의 장을 펼쳐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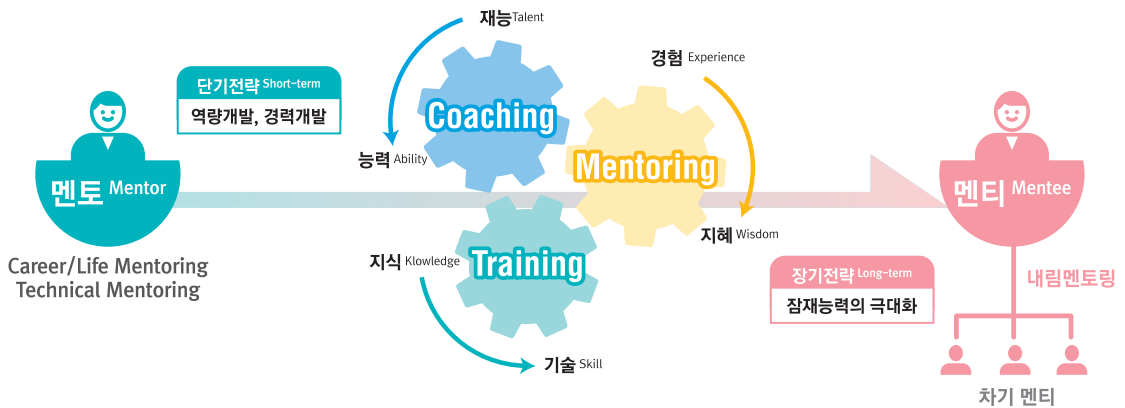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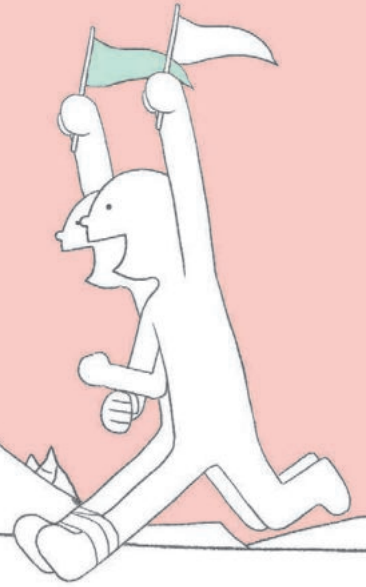
처음으로 이벤트 회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알차게 진행하려고 하는 회장단의 노력이 돋보였다.

외부업체의 지원으로 식사는 크게 불편함이 없었고, 축제의 장에 빠질 수 없는 막걸리는 28회 동기회에서 제공했으며 당연히 최고의 인기상품이 될 수 있었던 데는 그 많은 인원들이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이 제공된 적절한 안주가 제 몫을 했기 때문이며, 이는 언제나이듯 특히 여동문회를 중심으로 헌신적인 동문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열일 체쳐두고 참여한 재학생 후배들의 든든한 조력은 숨은 공신으로 부족함이 없이 올해도 묵묵히 굳은 일을 맡아주었다.

마지막 행운권 추첨에서도 상품 하나하나를 놓고 희비가 엇갈리는 재미의 장이 연출되었고, 어린 자녀들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중복해서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이 참가자들의 마음을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하게 했으며, 무엇보다 본인의 선물을 다른 참가 동문에게 양보하는 미덕은 올해도 어김없이 참가한 동문들에게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는가' 하는 당위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각 경기당 배점을 합한 종합우승은 34회 동기회가 차지했으며 준우승으로는 39회 동기회가, 3위로는 38회 동기회가 선정되어 두둑한 상금을 받았다. 최다참가상은 우승을 차지한 34회 동기회로, 3년 연속해서 최다참가상의 주인공으로 밝혀져 두 배의 격려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안산분회 역시 최다참가 분회의 영광을 계속 놓치지 않아 다른 분회의 모범이 되었다.

# 우리가 하나 되는 한걸음! 멘토링 2019

다양한 인재육성 인간관계 활동  
Multiple-way Developmental Relationship



우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이 동문회와 힘을 합쳐 선후배간 유대감 형성을 통한 동문간 결속력 강화와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들여 추진하고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2015년에 시작되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어나고 있는바 2019년 9월 27일 R&D센터 102관에서 ‘멘토링 2019’ 발대식 및 특강이 개최되었다.

이어 직능분야별 그룹별 멘토링을 진행함과 동시에 멘토링 특강을 수 차례에 걸쳐 개최했고, 마무리 작업으로 11월 29일 약학관 3층 대강당에서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참여한 분야별 지도교수와 선배 멘토들, 그리고 멘티로 알찬 경험을 공유한 재학생들이 모두 참여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수료증이 교부 되었고, 특히 베스트커플상으로 멘토 최두주(25회)-멘티 조관희 학생이 선정되었고, 우수활동상은 홍채민, 박은민, 조성탁, 김준형, 이동준 학생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특히 해당 멘토들에게는 동문회에서 마련한 이름이 각인된 필기구를 전달함으로써 더욱 행사의 열기를 끌어올렸다.





이지윤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발대식에서 **이재휘 학장**은 "이런 기회가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유익한 시간이 됨을 인식하고 진로 설정을 잘하자. 사회에 나가서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 줄 것이다. 향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시 후배들을 위해 멘토로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한 이래 우리 약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문회, 교수진, 학생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광훈 동문회장**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내 진로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학교에 있을 때는 교수님들이 보살펴주지만 졸업하면 선배들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같은 환경에서, 같은 강의실 문고리를 잡고 생활했으므로 동문이라고 하며, 공통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사회 어느 분야에나 도움을 줄 선배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으니 생각을 공유하고 발전시키자. 자랑스런 후배들이 좋은 약사로 성장하는데 동문회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성과보고회에서도 이재휘 학장은 "적극적인 참여로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훌륭한 멘토로 성장하여 이 사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으며, 최광훈 동문회장은 "선배들은 후배들을 보석으로 여긴다. 막상 약사가 되어 학교를 떠나면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뚝단배의 처지에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동문선배들이 있음을 기쁘게 기억하라"고 축사를 했다.

멘토링 사업은 제약회사, 병원약국, 지역약국, 연구기관, 보건행정기관 등 5개 분야로 진행되었는데,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각 분야별로 코디네이터를 담당하는 교수들이 배정되었고, 멘토는 각 분야별로 4~6명이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올해는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멘토들의 부득이한 사정을 대비해 복수 멘토로 운영하기로 하고, 제약회사 6명, 병원약국 6명, 지역약국 5명, 연구기관 4명, 보건행정기관 6명으로 모두 27명이 멘토로 참가하기로 했다.



제약회사 분야는 나동희 교수가 책임을 맡아 한국유나이티드 제약 정원태(28회), 정주철(51회), 한국다케다제약 문희석(31회), 고명수(54회), 한국애보트 이승윤(37회), 한국아이큐비아 전승(37회), 한국베링거인겔하임 김창수(40회), JW중외제약 김용현(46회), 대웅제약 김용호(54회) 동문 등 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병원약국 분야는 정선영 교수의 지도 아래 중앙대병원 약제부 김선화(45회), 건국대병원 박소미(56회), 서울아산병원 윤지영(56회),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약제부의 김유진(59회), 정송아(63회) 동문이 발벗고 나섰다.

또한 지역약국 분야는 정경혜 교수의 지도로 하안약국 최두주(25회), 보라매대학약국 김정수(26회), 용인윤약국 김광식(30회), 참온누리약국 김진수(36회), 천사약국 이승희(46회) 동문이 앞장 섰고, 연구기관 분야는 이성훈 교수를 중심으로 인하대 의대 양수근(37회), 단국대 의대 강명주(49회) 동문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보건행정기관 분야는 이지윤 교수의 책임 하에 식약처 경인청 박종필(33회), 로펌 율촌 김성진(33회), 보건복지부 오창현(35회), 김앤장 변리사 박병연(51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태경(56회), 식약처 이기철(61회) 동문이 힘을 보태주었다. 멘티는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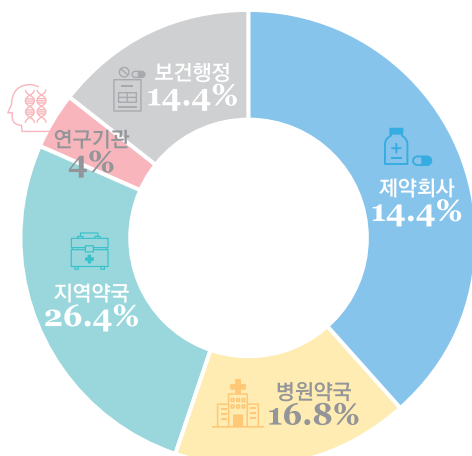


년 실습을 앞둔 5학년 재학생 125명이며 전공과 성비를 균등하게 고려해 그룹을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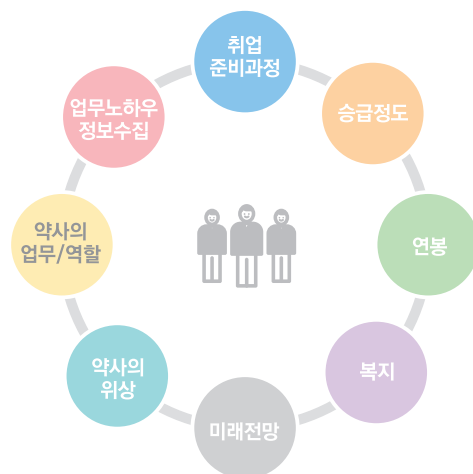
한편 본 멘토링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진행되었는데, 만족도가 높고 성공적인 멘토링이 되기 위해 5학년 재학생들(멘티)을 대상으로 사전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호하는 전문분야별 멘토와 멘티를 매칭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조사에서 진로선택을 위한 멘토링 분야의 경우 제약회사가 38.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약국 26.4%, 병원약국 16.8%, 보건행정 14.4%, 연구기관 4% 순이었다.

또한 멘티의 공통적인 관심사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어 흥미를 끌었다.

멘토링 2019 멘티 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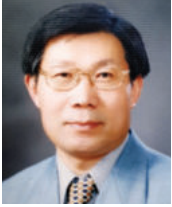


멘토링 2019 멘티 공통관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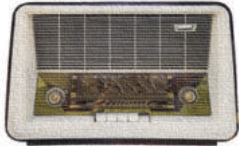


이 종 각 (13회)  
동기회 총무



## 새로운 순례길에서

### 13회 동기회 졸업 50주년 기념식



중앙대학교는 1918년에 설립되어 금년이 101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중앙대 총동문회 "중앙인의 날" 행사가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그날 310명 재학생들에게 3억 1,200만원의 거대한 장학금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금년까지 28만 명의 중앙인이 배출되었고 중앙일보 대학순위는 전국 6위에 해당되는 명문사학입니다.

약학대학은 1953년에 설립되어 63회에 이르렀고 총 8,000명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손동헌 교수님을 비롯하여 1회 선배님들께서 2017년도에 60주년 졸업 기념행사를 하셨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에 약학대학이 37개가 된다고 하니 약대 6년제를 나오는 후배들의 경제적 여건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전국 각지에서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약국을 성실하게 운영하며 가정과 자식교육에 올인하며 반듯한 삶을 살아오신 우리 동기를 한분 한분들이 너무나 소중함을 느낍니다. 꽃은 열흘 동안 피면 시들고 권세와 명예는 길어야 10년이며 인생은 100년, 예술은 1000년이라 하지만 우리가 나온 중앙대 약대 65학번 13회의 학적은 영원합니다.”

1965년 동아일보 전면에 "중앙대약대 전국 최고경쟁을 18.8:1"이라는 대문자로 쓴 활자체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 13회 동기들(65학번)이 군대 제대 후 복교하여 졸업 후 전국 약사고시를 치를 때 약사고시 1등 이해룡(천안 종로5가 약국), 3등 김상열(작고) 등 두 동기가 최고 경쟁율을 뚫고 입학한 중앙대 약대의 실력을 발휘하여 중앙대가 최초로 약사 국가고시 1등과 3등을 하였으니 대단한 우리 동기들입니다. 이번 13회 졸업 50주년 기념행사는 유한양행 부사장을 역임한 이충식 동기회장과 서울시 공무원 사무관으로 정년 후 외국 제약사에 다니는 본인 이종각이 총무로서 약국을 운영하는 동기들보다는 5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수월하겠다는 동기들의 뜻에 따라 5회에 걸쳐 미팅을 가지며 지난 40주년 행사 때 파악된 동기명단과 2009년, 2016년 약대 동문회 명부를 참고하여 4차에 걸친 안내편지와 초청장을 발송하며 참석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약사로서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고 사회에 나가 주어진 환경을 헤쳐가며 잘 살아가라고 열심히 가르쳐

주신 은사님들께 예의를 갖춰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고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십사 하는 초청장을 올려드렸습니다. 은사님이 몇 년 사이에 다섯 분이나 별세하셨고 동기들은 50년 세월 속에 스물여섯 명이나 세상을 하직하였으니 세월의 무상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13회 동기들은 136명으로 사망 26명, 해외거주 12명, 소재불명 27명으로 소재가 파악된 71명에 대해 동참해 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아울러 행사장 자리를 빛내기 위해 자랑스러운 우리 동문 제약사 선, 후배 회장님들께 초청을 드려 행사 당일 모든 분들이 화환을 보내주셔서 분위기를 띄워 주셨습니다. 지금도 왕성한 건강을 지켜가시며 모범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의 은사님들 한덕용 교수님, 손동헌 교수님, 김기호 교수님, 허인회 교수님, 김창중 교수님께 정중한 초청을 드렸습니다. 밤길에 나들이가 어려우신 한덕용 박사님(94세)은 참석치 못하신 관계로 네 분이 참석해 주셔서 인생 선배로서 좋은 덕담도 해주시니 스승과 제자를 떠나 동문 선배님들이





시라 행사장 분위기가 너무나 화기애애하여 저녁 행사 시간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은사님 대표 축사를 해주신 약대 1회 선배님이신 청호 손동헌 박사님은 Don,t give up, Don,t give up, Don,t give up을 강조하시며 격려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지금 70대 중반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선배로서 90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내 나이가 되려면 앞으로 창창한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절대로 안이한 생각으로 모든 것을 나이탓으로 포기하지 말고 생동감 있고 활기찬 인생을 살아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격려의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1회 선배님들은 2011년 11층의 현대식 약대건물이 신축된 약학관 앞에 "용립중앙 비상약대"라는 돌 비석을 세워 우리 중앙대 약대의 기상을 남겨 주신 분들로 우리 동문 후배들에게 큰 감동을 주신 존경스런 선배님들이십니다.

이충식 회장의 50주년을 맞는 감회에 젖은 멋지고 훌륭한 인사말씀 이후 최광훈 동문회장 축사, 이재취 약대학장의 축사에 이어, 동기 천수이 시인이 졸업 50주년을 맞이하는 동기들 가슴 속에 절절이 스며드는 감동을 주는 시낭독이 있었습니다.

시낭독이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올 때 청호 손동헌 은사님이

시가 너무나 가슴에 와 닿는다고 하시며 시를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중앙대약대 동문회보에 천수이 시인의 사진과 시귀절을 실어 동문들께 전달 드립니다.

일찍이 명문 경복고를 다닐 때부터 문학에 심취하여 문단작가로 데뷔하여 지금도 왕성한 문학활동을 하는 천수이 동기가 있어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2년 선배 되시는 김창중 교수님은 당일 불참하셔서 못 전해 드린 한덕용 박사님 선물을 바로 다음날 용인에 사시는 박사님 댁에 부부가 방문하시며 전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덕용 박사 내외분과 김창중 교수 부부가 사진을 찍어 우리 13회 동기들에게 한덕용 교수님의 감사 메시지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선배 김창중 교수가 정성을 다해 스승을 모실 줄 아는 정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행사 1부를 마치며 중앙대 교가 합창을 할 때는 평소 노래실력이 뛰어난 엄계숙 동기와 성악가 수준인 현재 동작구 중앙대 동문회장 김정수 후배(26회)가 같이 무대 앞에 나와 우렁찬 목소리로 교가 선창을 하여 행사 분위기를 마음껏 띄워 주었습니다.

우리 13회 동기들은 개성이 뚜렷하고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며 약사의 위상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은 65학번 친구들입니다.

중앙대 약대 13회 동기회장을 12년 이끌어온 전 김포시 분회장 김종성 회장, 유한양행 이충식 부사장, 문재빈 서울시 약사회장, 박동규 약사실험이사장, 서국진 중앙대 약대동문회장, 안병식 광명시 문화원장, 안상희 경인식약청장, 이상길 한사문화재단대표, 신선철 와이어스지사장, 윤창현 현대약품사장, 최창엽 강남구약사회장, 임유재 대전시약사회장, 황근성부천시약사회장, 이우식 중랑구 중대동문회장 등이 대부분 약국을 운영하면서도 약사의 위상과 지역확대를 위해 애들 많이 쓴 동기들로 그동안의 노고에 동기들 이름으로 깊은 찬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사에 약대 동문회에 발전기금 800만원을 기부하는데 통큰 기부를 해주신 이상길 전임회장 너무나 고마웠고, 멀리 강원도 고성에서 박강옥 동기는 부득이 참석은 못하였으나 본인 명의로 장학기금 100만원을 기증하여 총 900만원을 기부하니 가슴 뿌듯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약국을 성실하게 운영하며 가정과 자식교육에 올인하며 반듯한 삶을

살아오신 우리 동기들 한분 한분들이 너무나 소중함을 느낍니다.

꽃은 열흘 동안 피면 시들고 권세와 명예는 길어야 10년이며 인생은 100년, 예술은 1000년이라 하지만 우리가 나온 중앙대 약대 65학번 13회의 학적은 영원합니다.

지난 11월 9일 13회 졸업 50주년 기념행사에 미리 회비를 납부해 주시고 특별회비를 내주신 동기 친구들 48명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락이 안되었거나 부득이 참석치 못한 13회 동기 여러분!

우리가 졸업 60주년, 70주년에도 만날 수 있는 기대를 하면서 부디 건강들 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나날들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탐회 서효석회장, 대지회 김종갑회장, 인천중심회 이상길회장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1,3회 12명 전원과 탐회 김병현, 김윤중 동기가 특별회비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대지회의 옥정남, 탐회의 염운기 두분이 64학번으로 65동기들과 4년간 학창생활을 같이 하여 이번에 특별회비를 쾌척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새로운 순례길에서

천수이

남산과 관악산의 정기를 이어 받고  
 유유히 변함 없이 흐르는 한강을 바라보며  
 명수대 요람에 우뚝 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50주년을 맞이하여 은사님들 모시고  
 이 자리에 모인 소중하고 귀한 13회 동기 여러분  
 파이퍼홀의 실습실과 도서관의 강의실에서  
 의에 죽고 참에 살자는 모교의 정신 아래  
 힘써 배우고 익히며 성장한 우리 모두  
 머리에 자랑스런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있습니다  
 졸업은 또다른 출발의 시작입니다  
 꾸준히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약의 전문가로  
 사회와 가정에 기여하고 주어진 소명에 충실했습니다  
 울면서 태어나 부대낌과 사랑으로 살아온 나날들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고 비바람에 젖고 흔들리며  
 든든한 뿌리에 굳은 나무로 하늘을 떠받치고 섰습니다  
 지난 세월 누군가는 걷고, 뛰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누군가는 잠시 또는 영원히 쉬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시간 속에서 자연을 닮아가는 우리들

주름진 얼굴에 깊고 그윽한 계곡이 펼쳐지고  
 성긴 머리엔 흰 눈 날리는 산의 정상이 그려집니다  
 치열하고 다사다난했던 인생의 정점을 지나 이제  
 조용히 되돌아 생각하며 새로운 순례길에 나섭니다  
 어제와 오늘도 내일도 삶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 때 그렇게 했더라면, 그 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아쉬움과 미련을 뒤로 하고 무거운 짐 버리고 비우며  
 길 위에서 길 밖에서 길을 위한 길을 찾습니다  
 기원전 시편의 저자는 노래합니다  
 저희 날 수를 헤아리게 가르치소서  
 그러면 저희가 슬기를 얻으리이다  
 어느새 허공의 시간도 나뭇잎들도 곱게 물들고 있습니다  
 아직 펼치지 않은 책의 하얀 책갈피에  
 추억과 기억들이 인화된 단풍잎들이 가득합니다  
 야위고 이지러져 얼굴이 반쪽이던 달도  
 오늘 밤은 밝고 환한 보름달로 높이 떠서  
 별들이 뿌려진 하늘의 어둠을 보듬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기약 없이 한없는 사랑과  
 아련함과 존경의 마음으로 그리워 할 13회 동기 여러분  
 참된 기다림으로 순간순간이 영원이 되는  
 생명과 창조의 새로운 순례길에 길을 엽니다



홍순욱 (23회)  
동기회장



## 친구야 놀자

23회(75학번) 졸업 40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2019년 10월 26일 모교 약학관 11층 유니버시티클럽 세미나룸에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23회(75학번) 졸업 40주년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1996년 입학 20주년 기념식(세종호텔)을 필두로 1999년 졸업 20주년 기념식(모교 교수식당), 2005년 입학 30주년 기념식(대전 샤토그레이스호텔), 2009년 졸업 30주년 기념식(조선호텔), 2015년 입학 40주년 기념여행(남해힐튼호텔), 2016년 회갑 기념여행(제주도), 2019년 졸업 40주년 기념여행(부산)에 이은 동기회 전체가 마음을 합한 큰 행사였다.

제일 먼저 행사장 입구 벽면에 마련된 포토월에는 흑백의 상고머리에서부터 희끗희끗 서리가 내린 중후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세월의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사진들이 확대 전시되어 동기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30주년 기념식에서 선보였던 걸개그림의 연장선상에서 그 형식을 달리 꾸며본 포토월은 추억을 끄집어내는 촉매제로서 잔





“ 이번 모임을 준비하면서 졸업 40주년 행사로 공식적인 모임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결정적인 순간이면 늘 힘을 합쳐 준 동기들을 생각하면 50주년 기념식 때 만나자는 말이 꼭 공치사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들게 해 준 동기들이 고마울 뿐이다. ”

잔한 감흥을 불러일으켰다.  
 새삼 유명을 달리한 친구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전혀 다른 길로 떠난 몇몇 동기들의 기억이 희미한 안개 속에서도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으며, 중년의 여유로움과 중후함 혹은 힘든 세파에 찌든 어깨 구부정한 슬픈 자화상의 아누스적인 모습을 한 채로 거기서 우리가 웃고 있었다.

전화하고 안 되면 문자 남기고,  
 또 전화하고 안 되면 문자 남기고

2018년 11월 74학번 선배들의 행사 참관을 기점으로해서 우리 75학번 동기회 회장을 역임했던 친구들을 중심으로 강한 구, 김수중, 김영식, 박상진, 박종화, 박희용, 방용남, 임준석, 정덕기, 제갈희, 조병훈, 조종호, 한치완, 홍순욱이 '75학번 졸업 40주년 기념식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때로는 전체가, 바쁠 때는 서너 명이, 그도 힘들면 두 명이라도 얼굴을 맞대고 풀어야 할 현안을 어떻게든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거듭했다.

세월의 흐름을 실감하듯 꼭꼭 눌러쓴 편지 대신 카톡방과 이메일을 이용한 교신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마음만은 정성스럽게 편지를 쓰던 그 정신을 잃지 않고 한 명의 동기라도 더 참석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은 달라질 리 없었다.

핸드폰을 눌러보고 안 되면 문자 남기고, 또 다른 친구가 전화하고 안 되면 문자 남기고를 반복하며 특하면 자주 보던 얼굴은 물론이고 거의 소식이 단절되다시피 한 친구들에게도 사정이 허락하는 한 연락을 계속했다.

오늘의 주제는 '친구야 놀자'

시간에 맞춰 손동헌 교수님을 비롯하여 이광표, 김기호, 허인회, 김창중 교수님과 우리 윗 기수로서 모교에 재직 중인 손의동, 김홍진 교수님이 시간을 내주셨다. 또한 모교 이재휘 학장과 최광훈 총동문회장, 그리고 24회 동기회 함삼균 회장과 최영욱 교수 등 내빈을 모시고 50여명의 동기들이 우정





을 같이 했던 그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동기인 조병훈이 평소 취미생활을 넘어 활동하는 광화문 색소폰 콰르텟이 분위기에 꼭 맞는 곡을 생음악으로 연주해 주니 품격있는 자리가 되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톡톡히 했다.

박희용 동기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공식행사에서 홍순욱 동기 회장의 환영과 감사의 인사로 모임이 시작되었다. 오늘 모임의 주제는 '친구야 놀자'로, 돈에 건강까지 갖추었다더라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주위 친구들과 함께 하는 인생이 없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어 내빈들의 정감 어린 축사와 참석하신 은사님들을 대표하여 손동헌 교수님이 회고담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고, 감사의 인사로 준비한 소정의 상품권을 은사님들께 전해 드렸다.

행사 중간에 지난 30주년 기념식 때도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온누리약국체인의 박종화 사장이 다시 한 번 적지 않은 시간과 공력을 들여 제작한 슬라이드 쇼를 통해 친구들과 세

월의 흐름을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입학 후의 해맑은 모습에서부터 경기도 마석 근처 백봉으로의 약용식물 채집, 2학년 때 실시된 한려수도 방면으로의 수학여행, 3학년 학생회를 책임지던 시기에 어렵사리 엮어낸 합창발표회, 그리고 졸업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옛 모습을 고스란히 재현해 준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특히 참석자를 포함하여 근황을 확인할 수 있었던 모든 동기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방식으로 처리한 마지막 장면이 인상 깊게 남았다.

계속해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마련된 비용을 아껴 모교와 총동문화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500만원을 조성하여 새로 동문회를 맡아 젊은 후배들의 참여라고 하는 대명제 달성을 위해 분투 노력 중인 최광훈 총동문화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30주년 행사를 주관했던 임준석이 그 당시 방용남이 기증했던 판화작품 4점을 말끔하게 표구하여 그간 동기회 행사에 음으로 양으로 고생을 한 객창림, 제갈희 총무, 경조사 특명전권대사를 자처하는 김수중, 그리고 동기회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는 등산구락부를 대표하여 박상진에게 특별선물로 증정하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절로 따뜻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마지막으로 기념 케이크 커팅과 함께 이광표 교수님의 제의로 참석자 전원이 건배를 함으로써 헤어짐과 만남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을 마무리했다.

### 이심전심으로 터져 나온 '친구여'로 대동단결

뷔페식의 정갈한 식사를 잠시 즐긴 다음 모임을 좀 더 부드럽고 원숙하게 진행하기 위해 특별히 전문 사회자로 강루희 가수를 초빙하여 2부를 진행했다. 시끌벅적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흥의 시간을 즐겼는데, 역시 경험 많은 노련한 사회자의 적절한 진행으로 흐름이 끊이지 않고 흥이 이어지며 준비를 위해 애쓴 친구들은 물론 지방에서 온 친구들을 적절하게 지명하여 귀에 익은 노래를 들었고, 중간중간 이승하의 클라리넷 연주와 조병훈의 색소폰 연주가 감칠 맛을 더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미리 예정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심전심으로 참여한 모든 동기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친구여'를 부르며 오늘 모임의 진한 여운을 음미하는 귀한 시간으로 모두의 가슴속에 기억될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했다.

아무래도 공식행사로는 뭔가 허전한 구석이 남기 마련인 모임 뒤끝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교 정문 건너편에 있는 명동호프로 발길을 향하게 했다. 치킨과 골뱅이가 여기저기서 춤을 추기 시작했고, 서로 자리를 바꿔가며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의 근황을 묻다가 건배 제의가 나오면 잔을 높이 들기를 수차례, 그러나 세월의 흐름을 여기서도 실감할 수 있었다.

당연한 수순쯤으로 여겼던 노래방 마무리가 소리소문없이 사라진 것을 보고 서로 나이트 탕이라고 농반진반으로 상대방 탕을 하다 아주 늦지 않은 시간에 모임을 종료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방에서 온 동기들을 위해 학교 게스트하우스를 준비했었으나 이런 분위기를 예감했음인지 신청자가 없어 취소를 했다. 모임 있을 때마다 특별대우 어찌고 하면서 지방 동기들에 대해 신경을 쓴다고는 하지만, 늘 불편함을 내색하기는커녕 격려를 해주고 돌아가는 지방 동기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앞설 뿐이다.

### 회비 납부와 상관없이 모든 동기들에게 기념품 전달

이번 모임을 준비하면서 졸업 40주년 행사로 공식적인 모임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결정적인 순간이면 늘 힘을 합쳐 준 동기들을 생각하면 50주년 기념식 때 만나자는 말이 꼭 공치사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들게 해 준 동기들이 고마울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 전체 동기회 모임에 더해 등산, 당구, 골프 등 스포츠 동호회와 취미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아리 모임을 활성화할 것이며, 연말 정기모임도 서울에서만 할 게 아니라 지방에서도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면서도 동기회 행사에는 무조건 참석하는 김해의 강호영을 비롯 해서 대구의 최의한, 원주의 임창영, 천안의 방용남, 오산의 이원길, 안중의 윤명숙, 조병학 등 지방 동기들에게 느끼는 고마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행사에 직접 참여를 못하면서도 관심과 애정이 듬뿍 배어있는 회비와 진심이 담긴 격려를 같이 보내준 김연숙, 김요섭, 김진섭, 나용태, 송욱기, 양재업, 이영림, 이정대, 조근태, 최용준(동순), 한병철, 허인구 동기들이 아니었으면 이 행사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상당한 액수의 특별회비를 기꺼이 마련해 준 노바렉스의 권석형, 온누리약국체인 박종화, 큐엘파마의 이승하, 직전 동기획장인 김수종에게 고마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모임을 마무리하면서 공식 기념품으로 준비한 선물을 참석자는 물론 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을 못하거나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은 친구들 모두에게 발송하자는 의견들을 모아주고 실행함으로써 동기회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뿌듯한 마음 금할 수 없다.

'늙어 가지만 낡지는 말라'는 말을 금과옥조로 삼아 나날이 새롭게 거듭나는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며 졸업 50주년 기념식에서 건강하게 만나기를 기대한다.



조 호 원 (33회)



## 85학번, 그 자리에 마주 서다

33회(85학번) 졸업 30주년의 상념



82년 발매된 마이클 잭슨 'Thriller' 앨범 속의 비트 강한 노래와 시선을 홀리게 하는 문워크의 현란한 발놀림은 85년 캠퍼스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에도 그 위력이 여전하였다. 87년 발표한 앨범 'Bad'에 이르기까지 나의 대학 시절은 마이클 잭슨의 광풍에 휩싸였다.

나의 감성적인 모태는 귓가에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음악에 맞춰 자못 어깨를 들썩이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서늘한 이성의 한편에 무겁게 짓눌려오는 시대의 우울은 대학 4년 동안 마이클 잭슨의 비트에 나대던 심장의 쿵광거림과는 다른 방향의 감성을 자극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고, 더러는 희생되어 삶을 잃었거나 적극적인 항거에 헌신하였으며, 대부분은 무언의 동조로 힘을 보태었을 것이다.





“ 때로는 매우 숨 가쁘게 달려왔거나, 성공 혹은 좌절에 희비가 엇갈렸을지라도 그 흔적은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우리들의 초상이 아닌가. 더러는 머리술이 표가 나게 줄어들었고, 숨겨진 뺨살과 얼굴의 주름이 몰라보게 늘었어도 모두들 30여 년 전의 순수함과 싱그러움을 여전이 간직하고 있었다. ”

- 한 약국 앞에서는 약사가 시위대에게 박카스를 나눠 주고 있었다.(은희경의 마이너리그 중에서)

돌이켜보면 어느 세대 혹은 어느 학번이 대학 4년 동안 극단의 독재 정권하에서 민주화의 포문을 여는 살아있는 현장을 경험했는가?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사적으로 무혈 투쟁을 통해 가장 완벽한 민주화를 이룩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다. 그 현장에서 우리는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기뻐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해방된 기분이 이런 느낌이었을까? 우리들의 영광이었고 축복이었고 나의 행복이었다.

90년대 초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었다. 가족을 형성하며 비로소 주체적인 자아를 형성하였지만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은 서둘러 30대 잔치를 끝내고 있었다. 그즈음에 나는 남편과 산골 깊숙한 곳 무덤가 가는 길에 내 아이의 키에도 못 미치는 아주 작고 여린 뿔나무 스무 그루를 정성껏 심었다. 봄이 올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소극적인 희망심기였다.

마치 길 위에 희망이라도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을 거라는 신념을 굳게 믿으며 40을 맞았다. 내 나이는 21세기 초에 어중간하게 걸쳐있었다. 여행이, 그것도 타인이 이끌어주는 여행이 각별한 그 무엇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지는 못한다하더라도 적어도 시간이 지난 후 이 시기를 스스로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주 짐을 꾸렸다. 나 자신에게는 무엇에 그리 답답해 하는 지를 물었고, 나

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이해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나를 아는 모든 이에게는 행복하냐고 물었다. 어느덧 50줄이 넘어 인생을 관조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성장한 자식이 자신의 삶에 몰두해 갈수록, 남녀로서가 아닌 가족으로서의 동거인이 되어버린 남편과의 대화가 단절될수록 오롯이 남은 내 자신이 '나'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더 이상 내 인생에서 큰 의미가 없는 약국 일에 몰두하는 것 뿐이었다. 때론 지적 허영심을 채우고 한껏 멋을 부리며 젊음을 치장하여도 허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투병 중이신 어머니를 매주 뵈러 가는 길이 나에겐 서울을 벗어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점점 악화되어 가는 어머니의 병환을 지켜보면서 어머니의 미련함을 탓함과 동시에 원망과 분노가 생겼지만 나중에서야 그것이 나를 향한 감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를 보내고 가슴 한 칸이 슬픔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먹먹함으로 채워졌다. 내가 살아온 삶이 서글프고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50대는 자식과도 부모님과도 원치 않는 이별을 해야 하는 슬픈 시기인 듯하다.

우리에게 로망을 다시 찾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학교에 들어서자 루이스 가든도 로망도 사라졌다. 초현대식 건물과 이질적으로 변한 캠퍼스 모습에 그 자리에서 고민하고 대화하며 책을 읽던 추억도 같이 사라졌다. 오른쪽 다리



에 버티어 오른손으로 턱을 괴었는지, 왼쪽 다리에 버티어 왼손으로 턱을 괴었는지 아직도 그 정형에 확신이 없지만 그러면 어떠한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 확신 없는 정형 자체가 생각하는 모습이고 지금도 그 기억 자체를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사라지는 모든 것은 긴 여운을 남긴다. 나의 기억은 우연한 기회에 찍은 무표정한 한 장의 사진에 뚜렷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의 상황, 이를테면 최루탄 냄새 속에서 스쳐 지나가듯 얼핏 보았던 로맹이나, 갑자기 난데없이 “총성”이라는 외침과 함께 일련의 제복을 입은 ROTC들이 열을 맞추어 로맹의 곁을 무표정하게 지나가는 장면이라거나, 혹은 쌓인 눈에 허리춤까지 가려져 비로소 나체의 민망함을 벗었던 그리하여 자신 있게 대면했던 로맹이어야 온전한 로맹이었다. 아쉽게도 그 로맹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우리에게 로맹을 다시 찾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20대의 추억은 그렇게 사라져가고 있었다.

### 30년을 돌아 각자의 스토리를 품고 다시 만난 벗들

때로는 매우 숨 가쁘게 달려왔거나, 성공 혹은 좌절에 희비가 엇갈렸을지라도 그 흔적은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우리들의 초상이 아닌가. 더러는 머리숱이 표가 나게 줄어들었고, 숨겨진 뺨살과 얼굴의 주름이 몰라보게 늘었어도 모두들 30여 년 전의 순수함과 싱그러움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 기존 행사 형식을 탈피하여 은사님들을 뵈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오랜만에 만난 학우들과 과거로 돌아가 담소도 나누고 즐거운 레크리에이션 시간도 가졌으며, 장학금과 학교 발전기금을 전달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현재 모교 학장을 맡고 있는 이재휘 동기의 학교 소개, 특히 우리가 공부하던 파이퍼홀이 아닌 약대가 입주해 있는 102관 건물의 안내와 함께 약대 6년제 전환에 대한 진행 상황을 들었다. 분주한 일정 중에서도 최광훈 동문회장님께서 직접 시간을 내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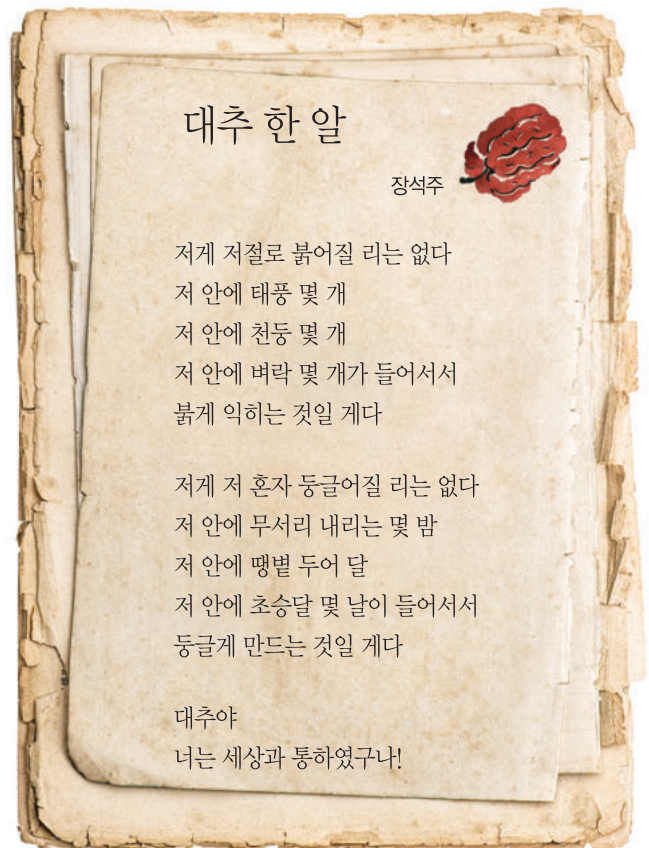
테이블 별로 사진도 찍으면서 행사의 기억을 오래 간직하려 했고 특히, 와인을 협찬해준 김정태 동기 덕분에 행사가 더 풍요로웠다. 우리 동기회장인 이정수는 인사말에 앞서 큰절을 동기 앞에서 올려 우리를 당황스럽게 했으나 그간의 마음

이 담겨진 모습이라 생각하니 오히려 행사를 잘 준비해 준 이정수에게 동기들이 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행사 전 일찍 만나 크게 바뀐 학교를 둘러보기 위해 투어를 준비했으나 행사 당일에 눈술시험이 있어 학교를 둘러보는 계획은 다음으로 미루어야 했다.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는 게 힘겨워 과거를 추억할 때마다 그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린다면 오랜 내 친구들이 아닐까 싶다.

그 자리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의 얼굴을 기억해 본다. 또한, 유명을 달리해 졸업 30주년 행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 본다.

장석주의 대추 한 알을 옮기며 한 시대를 같이 호흡하고 치열하게 살아낸 85 동기들에게 서로가 힘이 되어 주고 동지애를 느끼며 살아가기를, 앞으로 남은 제2의 인생에서 파이팅하기를 바래 본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우러러 볼 수 있는 상징이니까.



## 약대 통합 6년제를 향한 선배들의 뜨거운 후원 릴레이 - 약대 발전이 곧 중앙대학교 전체 발전의 밑거름

2022년 약대 통합 6년제 시행을 앞두고 우리 약학대학 동문들의 염원을 담은 발전기금 전달식이 릴레이로 열리며 선배들의 후배사랑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일찍이 약학관 신축을 위해 60억원의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중앙대학교 내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앞장서서 수행한 바가 있고, 이제 통합 6년제 시행을 앞두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돋움을 위해 다시 그 열기를 다시 끌어모으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 미얀마 산학협력기금 5억5천만원, 신완균(7회)

동문 1억원, 이상준(21회) 동문 1억원, 임종홍(7회) 동문 1천만원 기부에 이어, 한창희(11회) 동문 3천만원, 이은주(16회) 동문 5천만원, 진정주(38회) 동문 1억 4천만원 등 동문들의 발전기금 희사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 약학대학 동문과 교수들은 합심하여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향후 10년간 보다 적극적으로 발전기금 조성에 노력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중앙대학교 전체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한창희(11회) 동문, 20년 된 자가용 교체 대신 발전기금 3천만원 쾌척



잇따른 태풍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던 와중에 언제 그랬냐는 듯 모처럼 쾌청한 날씨 속에 10월 13일 중대부 속중학교 대운동장에서 우리 동문 400여명이 참석하여 '제49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의례적인 순서에 따라 행사가 진행되는 도중 지방에서 모처럼 체육대회에 참석했다는 한창희(11회) 동문이 마이크 앞에 섰다. 미사여구나 의례적인 자화자찬의 말씀은 푹 잘라버리고 한 짧은 몇 마디가 오히려 큰 공명을 일으키며

참석한 동문들의 가슴을 울렸다.

약대 졸업 후 약국을 성실하게 운영해 왔으나 지금도 여유가 있는 정도는 아니고, 오래 전부터 20년 된 고물 자가용을 교체하겠다고 적금을 적립했다는 것이다. 내용인즉 막상 적금의 만기가 도래하자 차를 바꾸는 개인적인 일보다 후배들을 먼저 돕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이라는 자각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담담하게 하셨다. 크게 내세울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막상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비록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또 학교로 달려오고 싶다는 말씀에 누구랄 것 없이 잔잔한 감동과 함께 진심 어린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돈이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장학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후배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고, 일단 결심하면 마음이 편해지며, 기회 되면 또 회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 든다는 그분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탓일 것이다.





## 이은주(16회) 동문, 학창시절 장학금 혜택 빛 값는 기분으로 발전기금 5천만원 회사



지난 11월 7일 오후 3시 약학대학 회의실에서 1972년도 졸업생인 이은주(주식회사 지평선 대표이사) 동문의 5,000만원 발전기금 전달식이 열렸다.

이은주 동문은 약대 재학 당시 4년간 장학금을 받고 다녔으며, 각고의 노력 끝에 수석으로 졸업한 후 23년간 약국을 경영했고, 새벽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온종일 약국에 매여 사는 삶이 지속되었다고 한다.

어느 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보다 본원적인 자신의 모습을 찾고 싶다는 자각이 들었

고, 그 길로 약국을 정리하고 현재 작은 무역회사를 창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그간 마음속에만 두고 있던 모교에 빛을 값고 싶다는 이은주 동문의 오랜 바람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은주 동문은 무엇보다 대출을 받아서 등록금을 내야 하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장학기금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또한, 2022년부터 약학대학은 통합 6년제로 학제개편이 이루어지고 많은 발전과 타 대학과의 경쟁력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 약대 연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방면에도 쓰일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이재휘(33회) 약대 학장과 손의동(22회) 발전기획위원장, 배지현 약대학부장, 최형균 대학원 제약학과장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선배님께 각별한 고마움을 전했고, 특별히 최광훈(22회) 동문회장과 최창원(16회) 동기회장이 자리를 같이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 진정주(38회) 동문, 장학금/발전기금 1억4천만원 기부

- 2019학년도 진정주 장학금 발전기금 및 장학증서 수여식, 기부자 특강 개최

1990년 우리 약학대학에 입학, 1994년 졸업 후 현재 안산에서 새생명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진정주 동문이 회사 한 기금을 바탕으로 '2019학년도 진정주 장학금 발전기금 및 장학증서 수여식'과 '기부자 특강'이 11월 11일(월) 오후 5시 약학관(102관) 106호에서 개최되었다.

본 행사에는 기부자인 진정주 동문을 비롯하여 부군 박찬선 목사, 최재오 대외협력처장, 이재휘 약학대학장 및

다수의 약대 교수, 그리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20명의 재학생을 비롯한 많은 재학생들이 참석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20명의 학생들에게 각 500만원씩 1억원의 장학금이 전달되었으며, 별도로 약학대학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 4천만원을 기부했다. 주목할 것은 장학금의 대상이 약대생 10명에 더해 비약대생 10명이



선발된 것으로, 비단 약대뿐만 아니라 모교인 중앙대 전체의 발전을 기원하는 기부자의 확고한 뜻이 많은 의미를 일깨워주며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진정주 동문은 격려사에서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되어 너무 행복하다. 꿈나무인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고 성장해서 후배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될 재목들 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모두 사회에 나가 훌륭한 활동을 하고, 다시 모교로 돌아와서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뿌릴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진 ‘뜻대로 혹은 뜻하지 않는 대로’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진정주 동문은 본인이 부산의 도시빈민 출신이라고 표현할 만큼 경제적으로 극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혹독한 현실을 온몸으로 부딪치며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담담하게 표출했다. 생존을 위해 강해져야 했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자세가 이런 어려움을 이겨낸 바탕이라는 설명에 참석자들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25년간 약국을 경영해 오며 뜻대로 된 일이 별로 많지 않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뜻하지 않은 행운을 만났다는 설명은 어려움을 몸소 극복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강한 울림을 주었다.

사법시험 1차 합격과 몸이 아파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2차 시험, 버킷리스트였던 수필집 대신 잘하는 분야를 살

리라는 부군의 조언으로 집필한 약과 운동 및 심리에 대한 책 ‘아파도 괜찮아’ 출간, 이 인연으로 아프리카 TV에 출연할 것이 계기가 되어 이메일 주소도 없던 기계치에서 용기를 내어 환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한 유튜브 ‘진약사특’, 그리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한 ‘10분성경톡’ 운영 등 실로 다양한 도전과 활동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아무 것도 모르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운다”는 생존 철학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는 현실의 보상으로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약국이라는 현실의 작은 공간이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모토로 꿈의 직장을 구현하고 있는 구글의 정신을 바로 내가 경영하는 약국에서 이루어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설명에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졌다.

진정주 동문은 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비결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배려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자세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중앙대학교 후배들이 성장하기를 소망한다는 바람으로 참석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특강을 마무리했다.





식물도 아닌 것이 동물도 아닌 것이

# 진균 Fungi ③

편집위원회

## 대표적인 진균감염성 피부질환

### 피부사상균증 (백선증; Dermatophytosis)

가장 대표적인 진균성 피부질환으로 피부사상균(Dermatophytes)이 표피의 각질층 또는 모발·손톱 등에 기생해서 생기는 피부표층 진균증이다.

종류	주요감염부위	원인균
<b>Tinea pedis</b> (무좀, 족부백선)	발가락	· Trichophyton · Candida
<b>Tinea cruris</b> (완선, 고부백선)	사타구니	· Trichophyton · Microsporum · Candida
<b>Tinea corporis</b> (체부백선)	전신: 수염, 손발, 두피, 사타구니 제외	· Trichophyton · Microsporum · Candida
<b>Tinea capitis</b> (기계충, 두부백선)	두피	· Trichophyton · Microsporum
<b>Tinea unguium</b> (Onychomycosis, 조갑백선)	손톱, 발톱	· Trichophyton · Candida
<b>Tinea versicolor</b> (Pityriasis, 전풍)	상체	· Malassezia furfur

피부사상균증의 종류

#### ① 족부백선(무좀)

진균감염성 피부질환 중 가장 흔한 질환으로 인구의 30-70%가 경험한다고 하며, 땀을 많이 흘리고, 양말이나 신발을 자주 갈아 신지 않아 발이 불결한 사람, 실내온도가 높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잘 발생하며 특히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에 많이 발생하고 자주 재발한다. 크게 지간형, 소수포형, 과각화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② 고부백선(완선)

고온다습한 환경과 발한, 비만, 밀착한 내의와의 기계적 마찰 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주로 서혜부나 음부 주위에 발생하는데, 초기에는 각질이 덮인 홍반으로 시작하여 주위로 퍼지면서 가장자리가 주변보다 융기한다. 젊은 남성에게 많이 발생한다.

③ 조갑백선

다른 신체부위에 피부사상균 감염이 있는 경우 30% 정도에서 조갑진균증이 발견되는데, 남성에게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 손톱 및 발톱에 발생하며, 대부분 만성 수족부 백선이 진행하여 발병한다. 손·발톱이 황백색으로 변하고 광택이 없어지면서 두꺼워지며, 표면은 불규칙해지고 손·발톱의 끝부분이 쉽게 부스러진다.

④ 체부백선(도장부스럼)

두부, 모발, 수족, 서혜부를 제외한 피부에 발생하는 진균증으로, 안면, 목, 팔다리, 몸체 등에 나타나며, 반상 수포성 백선 혹은 버짐이라고도 한다. 고온다습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며,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영양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 당뇨나 결핵 환자, 면역저하자에서 잘 발생하며, 개나 고양이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조갑이나 족부 등 다른 부위에 진균증이 있는 경우 감염되기 쉽다. 초기에는 각질이 일어나는 붉은 반점이 발생하며, 주변부로 퍼져나가면서 뚜렷하면서 융기가 일어난다.

⑤ 두부백선(기계충)

과거에는 이발기구, 머리빗, 모자 등을 통해 전염되었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 개나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에 기생하는 진균이 주 전파경로로 알려져 있다. 머리카락 및 두부에 발생하는데, 원형의 각질이 일어나고 머리카락의 윤기가 없어지며, 진균이 침범한 부위의 털이 끊어지거나 빠져서 탈모 증세가 나타난다. 증상이 심해지면 심재성 백선의 일종인 독창(kerion)까지 일으킨다. 대부분 초등학교 연령의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한다.

칸디다증 (Candidiasis)

진균류에 속하는 *Candida albicans*라고 하는 효모의 증식으로 일어나는 병으로 모넨리아증이라고도 한다. 점막 칸디다증(구강 칸디다증, 칸디다성 질염), 피부 칸디다증(칸디다 간찰진, 조갑주위염), 만성 피부점막 칸디다증, 전신성 칸디다증 등으로 크게 구분한다.

원래 칸디다는 정상적인 피부·점막·분변·객담·요 등에 존재하며 인체에는 해가 없지만, 항생물질이나 부신피질호르몬을 사용한 경우나, 인체의 감염방어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이상증식을 하여 병을 일으킨다.



① 구강 칸디다증(Oral candidiasis)

아구창(thrush)이라고도 하며 영양상태가 불량한 신생아 또는 AIDS 환자같이 면역



력이 떨어진 환자에서 관찰된다. 협점막, 치은, 혀 등에서 발생하며 붉은 기저면이 노출된다.

### ② 칸디다성 질염(Vaginal candidiasis)

여성의 질에 정상적으로 25-30% 존재하는 *C. albicans*에 의해 발병하며, 외음부 충혈, 종창, 심한 소양감, 동통, 유백색의 치즈 또는 버터상의 분비물이 분비된다.

### ③ 칸디다 간찰진(Candida intertrigo)

피부가 겹쳐 주름진 부분이나 옷, 신발 등에 의해 폐쇄된 습한 부위에 발생하는데, 뚱뚱한 환자나 당뇨, 국소용 부신피질호르몬제를 투여 받는 성인에게 많이 발생한다. 서혜부, 액와, 둔부, 회음부, 항문주위의 간찰부위에 경계가 명확한 습윤면을 형성하며, 흔히 통증과 소양증이 동반된다.

### ④ 칸디다 조갑주위염(Candidal paronychia)

물일을 하거나 젖은 물건을 많이 만지는 주부에 흔히 발생하는데, 조갑주위에 발적, 수종이 발생하고 때때로 농이 배출될 수도 있고 대개 여러 손가락에서 증상이 나타난다.

### ⑤ 만성 피부점막 칸디다증(Chronic mucocutaneous candidiasis)

유소아기에 피부점막, 조갑에서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표재성 칸디다 감염증으로, 선천성, 유전성인 세포성 면역부전, 철대사 이상과 내분비 이상, 비타민 A 결핍증이 있는 유아에 흔히 발생한다. 드물게 나타나는 편이며, 대개 6세 이전에 나타난다.

### ⑥ 전신성 칸디다증(Systemic candidiasis)

칸디다균이 몸안의 장기에까지 감염을 일으켜 나타나는 질환으로, 백혈구감소증, 암환자, 소화관 수술을 받은 환자, 정맥투여 약물 남용 환자에 흔히 발생하며 복막투석 중에는 복막에도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 자신의 위장관에 있던 칸디다균이 침입한 것이며, 기존에 있던 피부 칸디다증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다.

### 전풍(어루러기; Pityriasis)

효모인 *Pityrosporum orbiculare*(병변부에서 기생형태인 사상균 형태 *Malassezia furfur*로 변화)가 원인균이며, 건강한 청·장년층 남녀의 땀이 많이 나는 지루부위(앞가슴, 등, 어깨)에 호발한다. 여름철에 다발하며, 발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수개의 회백색-암갈색 원형반점을 형성하며, 흔히 비강 모양의 인설을 수반한다.

피부 진균증의 5%를 차지하는 것으로, 인체의 저항력이 떨어지거나 변할 때 발생하며 유전적 소인, 발한, 영양불량, 임신, 성호르몬의 난조나 부신피질 호르몬제의 사용, 고온다습한 기후 하에서 피부의 pH 변화가 원인이 되어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동문 한 사람의 작은 정성이 큰 동문회를 만듭니다. 회비납부,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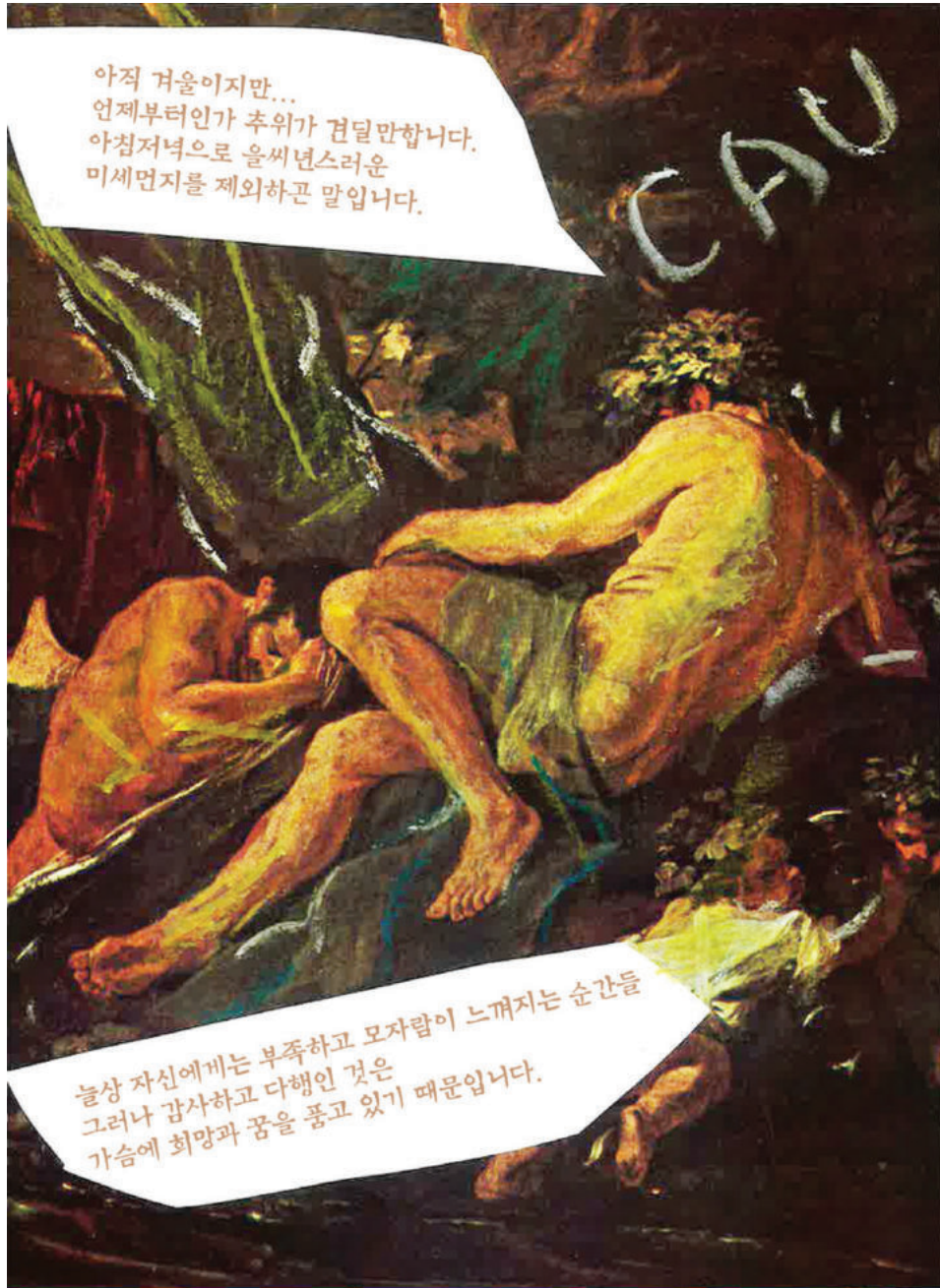
납부기간 : 2019. 7. 1~2020. 1. 31

회장단회비		600,000원	
22회	고석순, 김인선, 김태일, 김홍진, 박동우, 박상룡 박성준, 오황영, 이영욱, 이정석, 천경호, 최광훈 한만영	28회	이해룡, 김영희, 이영주
23회	박종화, 권석형	29회	김인혜, 이종옥, 김은진, 김형수
24회	이규삼, 이범도	30회	김광식
25회	이광인, 최두주	32회	정선종
26회	최민규, 한갑현	34회	신수민, 한일권
27회	곽나윤, 김정호	36회	우경아, 임기민
		42회	이광희

이사회비		150,000원	
1회	손동헌	20회	김홍진, 박기배, 배성진, 이상일, 임경원, 김현태 류화승, 이극선 임구래, 최석중, 구장림, 문주기 이영희
2회	황재수	21회	김대일, 김수배, 백운경, 김중호
3회	강승조	22회	이현희, 한상훈, 강희윤, 이규흥
3회	손석우	23회	박상진, 조병훈, 김영출, 하충렬, 박희용
4회	이창우	24회	김승재, 조종래, 임무호, 장규욱, 김태두, 황규진
6회	안인혁, 유상열, 박정배, 장지용, 김동열, 유관열 진교성	25회	고성권, 김완기, 김희섭
7회	박명신, 이기안, 정재일, 서명규, 김정부	26회	손영상, 김정수
8회	김연희, 김희영, 박번일, 조의환, 임상묵, 한석원	27회	박수길, 최충식, 오흥설, 변옥희
9회	김홍래, 박장우, 이규진, 이근배	28회	이병천, 전금용, 유희동, 김유곤, 신영무, 이상수
10회	박호일, 방순환, 유정사, 이흥수	29회	한일룡, 손병로, 박웅삼
11회	김창중, 박신규, 박찬희, 김미자, 고승하, 이철규 황공용	30회	김해승, 김혜수, 신일균, 최병태, 김연하
12회	심재웅, 염윤기, 이성우, 노덕재, 조택상, 이관하 이호섭	31회	오세정, 윤희정, 이미지
13회	구연홍, 문재빈, 안병식, 이상길, 박동규, 이종각	32회	이경우, 정영복, 유명식
14회	구종모, 김동원, 조길도, 박기진, 조병화	33회	김영재
15회	조찬휘	35회	양윤정, 임중식, 송지숙
16회	백승복, 이상규, 이은솔	37회	이경모
17회	김인형, 양희익, 장재인, 이희정	38회	임향숙
18회	조중형, 강응모, 김기명, 전광우	39회	박성훈, 한은경
19회	남상규, 이경옥, 이창욱	42회	정동만

일반회비		30,000원	
5회	윤재훈, 임맹순	27회	전명수, 김창식, 이정아, 오애영, 조광호, 문연숙
6회	김태춘, 신의명, 임은순, 이원걸, 황선창	28회	김상범, 문현미, 이석원, 유정수, 조한군
7회	윤태정, 이상현, 조경신, 조근행, 조익중, 이형진 이명원, 한경석	29회	장우성, 한규인, 사철기, 이경근, 장승학, 심미선
8회	강윤구, 김순자, 안덕기, 유재우, 임천석, 최귀령 최영자, 허근희, 신현우, 이태하, 조수현, 정달수 정재영, 정재용, 이백천	30회	고은숙, 이호일, 조순연, 송정숙, 손은실, 문미래 김용규 강형숙, 도민숙, 조민숙, 김영희, 이경숙 최현희, 김상의
9회	노신희, 권오성, 이병호, 정상모	31회	이정희, 유영숙, 이병각, 김도형, 김미경, 이동익 송소연, 류문숙, 강미숙
10회	박광일, 심수일, 이원일, 이장열, 김정남	32회	채영주, 안승희, 유귀숙, 정현삼, 육혜경, 이경준 심상철
11회	구자역, 안홍신, 전창환, 한창희, 양계창, 이석태 차영진	33회	최현정, 이성수, 전광석
12회	이순우, 이정희, 문혜성, 오형철, 우홍길, 김신우 정용오, 이연수, 정광식, 김대건, 김동욱, 박홍식 최병호, <b>심재창(50만원)</b>	34회	민성철, 김용수, 백희숙, 이 준, 노영화, 박병호 임혜숙 성선경, 김성현, 이선우, 박상권
13회	최승기, 김석규, 우동진, 최창조, 이우식, 이규선 김세대	35회	김성훈, 우난숙, 양정희
14회	김진행, 현혜경, 류효성, 박찬임, 홍성철, 김명수 김인덕, 김종렬	36회	방극상, 유복진
15회	이인석, 김대웅, 송현숙, 황인영, 김용규, 이명숙 경명호, 진총렬, 이덕노, 박태호	37회	오상희, 임성주, 김성엽, 이정우, 전상인
16회	윤영위, 이규주, 신규연, 박종애, 조연심	38회	성치순, 함미경, 이명희
17회	김현화, 이영자, 최해광, 신승백, 이동우, 이희정 주완표	39회	김명철
18회	육득윤, 권영철, 여운숙, 양만기, 남애숙	40회	이필상
19회	장명섭, 배영덕, 남윤수, 윤영문	41회	박영진, 장산옥, 이은경, 김홍주, 구영준
20회	김영식, 남덕자, 이재형, 정동천, 정영수, 윤춘수 김평자	42회	박소영, 임태규, 이창경
21회	신길득, 장창만, 한찬수, 이상준, 조홍윤, 김구영 이기복 강성무, 김진자, 한성희, 김동학	43회	송세현, 정의찬, 고정봉, 문상희
22회	오기환, 김광준, 양희복, 장상대, 정태화	44회	고기현, 조동환, 김지하
23회	나용태, 김민영, 이원길, 송명숙, 강호영, 임창영	45회	배종구, 강병균
24회	김정무, 정상수, 박관수, 신용철, 함기철	46회	신현주, 김기돈
25회	이수영, 김용빈, 김선열, 이동규, 위성건, 이영제 오근택 손현우, 이승정	47회	서효진
26회	이윤일, 오승주, 진희역, 김윤수, 이순아, 김재역 최종배, 김봉일, 최옥숙	48회	우종식
		49회	유은걸, 김보건, 정주철, 이명원
		50회	김혜지, 서소현
		51회	이윤정, 황인아
		52회	윤지영
		53회	변성민
		54회	김승민, 김명중, 박현수
		55회	이현택, 박승찬, 정영섭
		56회	
		57회	
		58회	
		59회	
		60회	
		61회	
		62회	
		63회	





푸생이  
Midas et Bacchus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 2019-2학기 약학대학 동문회장학금 수혜자



번호	장학금명	장학금액(원)	전공	성명
1	손동헌장학	1,000,000	약학부	정원식
2	김명섭장학	1,000,000	약학	이치호
3	본동문회	1,000,000	약학부	이도환
4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강유나
5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민혜원
6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박종현
7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송우길
8	본동문회	1,000,000	약학	오준환
9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이보미
10	본동문회	1,000,000	약학	이혜원
11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주동규
12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강지선
13	본동문회	1,500,000	제약학	김소라
14	본동문회	1,000,000	약학	김현성
15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박유빈
16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송우석
17	본동문회	1,000,000	약학	방준식
18	본동문회	1,500,000	약학	편도현
19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홍주현
20	본동문회	1,000,000	약학	황윤정
21	여동문회	1,000,000	제약학	우유림
22	생약반동문회	1,000,000	제약학	안상흠
23	생약반동문회	1,000,000	제약학	이재은

번호	장학금명	장학금액(원)	전공	성명
24	약제반동문회	1,000,000	약학	문성윤
25	약제반동문회	1,000,000	약학	이기범
26	26회동기회	1,000,000	약학	김혜진
27	26회동기회	1,000,000	약학	배준홍
28	약품물리반	1,000,000	제약학	김민수
29	약품물리반	1,000,000	제약학	이다솔
30	병태생리학교실장학회	1,000,000	제약학	박혜리
31	병태생리학교실장학회	1,000,000	제약학	오유준
32	생체방어조절연구실	1,000,000	약학	홍채민
33	강서동문회	1,000,000	약학	박수영
34	안산동문회	1,000,000	제약학	정무영
35	28회동기회	1,000,000	약학	신성우
36	28회동기회	1,000,000	약학	오주희
37	부산동문회	500,000	제약학	정치환
38	칼라무스	1,000,000	약학	김선우
39	칼라무스	1,000,000	제약학	김준하
40	칼라무스	1,000,000	약학	박주형
41	칼라무스	1,000,000	약학	이도연
42	칼라무스	500,000	약학	권소정
43	칼라무스	500,000	약학	윤종호
44	32회 동기회	1,000,000	제약학	주세영
45	38회 동기회	1,000,000	제약학	송인성
<b>합 계</b>		<b>44,500,000</b>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세계를 우리 문화가 선도하는 느낌이다.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이번에는 한국의 봉준호 감독에 의해 만들어진 영화 기생충이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 장편상을 휩쓰는 영화사에 길이 남을 발자취를 남겼다. 영상을 매개로 하여 시대적인 반전의 이야기를 천재적으로 꾸려나간 매력에 세계가 감동하고 격찬한 것이다.  
카드리느 드네브와 제인폰다가 트로피를 건네주고 포옹하는 장면은 꿈이 아닌가



**박희용(23회)**  
편집위원

(사실 고향 떠난지 오래되어 이제는 안드로메다 어디쯤 까지만 기억이 난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지구를 피할 수 없는 혼란과 충격에 빠트리자 고향별에서 이제는 그만 돌아오라고, 우주선 보내줬노라는 연락이 왔다.  
그러나 어찌겠는가?  
다 버려두고 나만 갈 수는 없는 것을.  
여기서 지구인들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외계인의 운명이라고 별반 다르게 없는 것을!)



**최두주(25회)**  
편집위원

약대 통합 6년제 시행을 앞둔 진통이 컸지만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  
그간 중앙대 내에서 차지했던 약대의 위상과 헌신과 기여를 통크게 인정하고 약대의 발전이 곧 중앙대 전체의 발전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학교측에서 흔쾌히 받아들인다면 약대 동문회가 더 큰 울림으로 되돌려 줄 마음의 준비를 이미 마쳤다고 선언할 것이다.



# 도전하겠습니다! 개척하겠습니다!

모두가 쉬운 길을 택할 때,  
아무도 가지 않는,  
새로운 길만을 개척했던 한미약품!  
인류건강을 위한  
혁신신약 연구개발로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Hanmi**



‘빛나는 피부를 경험하세요’

기억하세요, 리쥬란®

Remember, REJURAN®



# 아픈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약사님들께 구주제약 알코덱스액을 소개합니다.



알코덱스액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L-아르기닌 7,310mg



나의 활력을 위해  
알코덱스를 마신다!  
20 mL x 30V

우리팀 지친 간을 위해  
알코덱스를 마신다!  
20 mL x 5V (6Box)







##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610호-1

전화 02-565-1700 팩스 02-564-1701 홈페이지 [www.caupharm.or.kr](http://www.caupharm.or.kr) 이메일 [capa21@hanafos.com](mailto:capa21@hanafos.com)